



## 한국의 지리학연구 60년 회고와 전망

박삼옥(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1. 서론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지리학회는 한국의 지리학발전을 주도하여 이미 5년 전에 세계지리학대회를 개최하고 학문의 국제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학회가 되었다. 광복이후 60년 동안 한국지리학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60년의 기간은 3세대에 이르는 학문의 변화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한국 지리학 60년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한편의 논문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편견과 이해의 부족으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을 짧은 글로 정리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지리학의 한 전공분야를 정리하는 것도 용이치 않을 진데, 한국지리학 전체를 아우르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지리학 연구분야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 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지리학계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한국지리학 전반의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바 있다. 1975년 대한지리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리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념심포지엄을 통하여 정리한 것이 그 첫 번째이고, 1995년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지리학의 반세기 :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행한 학술대회가 그 두 번째이다. 한국지리학의 발전내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제29차 세계지리학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 IGC)를 개최하면서 IGC 조직위원회에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에 대한 책자를 출판한 것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서 대한지리학회를 통하여 <지리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 그 네 번째이다. 지리학 전반을 다루지 않았지만 2002년 12월말에 대한민국학술원에서 <한국의 학술연구>시리즈로 <인문지리학>을 정리한 바 있다. 이외에 각 전문학회별로 관련 계통지리학분야를 정리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고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한국지리학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피는 데에는 학회지, 저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학회지에 출판한 논문이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회지는 지리학의 학술적 연구 결과를 출판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며, 순수한 의미에서 학문발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학 박사학위논문은 한국의 지리학연구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대상에 포함하였다. 학회지 중에서도 대한지리학회지와 지리학전문화회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서 지리학자들이 상당수 활동하는 한국지역학회의 <지역연구>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국토계획>과 국책연구소에서 출판하는 학술지, 그리고 일부 지리학과에서 출판하는 학술지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는 대한지리학회지와 지리학전문화회지 그리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간략히 분석하고 주요 연구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앞으로 21세기에 한국지리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과제와 연구방향을 전망하도록 하겠다.

## 2. 학술지 발간을 통한 연구활동

### 1) 한국의 지리학 연구의 시기구분

대한지리학회가 1945년에 설립되었지만 학회지는 1963년부터 출간되었다. 학회의 학

회지는 1992년까지는 <지리학>으로 발간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대한지리학회지>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되고 있다. 1968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출간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출간되었으며, 최근에는 영문판 2호를 포함하여 매년 6호가 출간된다. 한국지리교육학회에서 1973년부터 <지리학연구>를 출간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는 부정기적으로 출간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년 출간하고 있다. 1980년대는 이들 두 학회지가 안정적으로 출간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 이전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리학 발전의 시기구분은 한국지리학자의 학문세대구분과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본다. 해방과 더불어 지리학의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유사전공자로 구성된 대학교수들에 의해서 학회가 창설되고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으며 지리교사들이 양성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이들 학문 1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학문 1세대로부터 교육받은 학문 2세대들은 차츰 외국유학길에 올라서 선진국의 지리학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하고 귀국하여 대부분 대학에 교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는 주로 1970년대 말경까지이며,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학문 3세대들은 대체로 1980년대 초까지 귀국하여 후학을 육성하게 되면서 한국지리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변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1970년대까지는 한국지리학이 학문 1세대와 2세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 반면에 1980년대는 많은 학문 3세대 한국지리학자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후학을 육성하는데 힘썼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학문 2세대로부터 교육받은 대학원생들 중,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외국의 지리학이 국내연구에 응용되면서 본격적인 대학원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970년대 이전과는 구분될 수 있다.

1990년대는 수많은 지리학전문학회가 창립되고 각 전문학회지가 출간됨으로 인하여 한국지리학의 빅뱅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89년의 문화역사지리학회지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 관광지리학회지가 1992년부터 출간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지리환경교육학회지(1993년), GIS학회지(1993년), 사진지리(1993년), 지형학회지(1994년), 지역지리학회지(1995년), 경제지리학회지(1998년), 도시지리학회지(1998년) 등이 창간되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1990년대는 이와 같이 한국지리학의 전문학회지가 창간되어서 1980년대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학회지 논문이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1990년대에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지리학도들은 대학은 물론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전문화된 학술모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전문지리학회의 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한 1992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27차 IGC에서 2000년 IGC를 한국에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고, 이에 따라 많은 한국지리학자들이 세계지리학연합(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 IGU)의 학술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IGU 산업공간조직 분과위원회의 학술회의와 1996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8차 IGC에서 최초로 한국인이 IGU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1998년에 최초로 한국인 IGU 분과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한국지리학자들이 IGU의 각 분과위원회(Commissio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1명에 불과하였던 분과의원회의의 한국인 집행위원(과거의 정회원)은 2000년 IGC의 서울유치를 계기로 2000년에는 12명으로 증가하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0년 IGC의 서울유치, 4세대 지리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으로 1990년대는 한국지리학계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수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2000년 서울 IGC를 개최한 후부터 한국지리학은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4세대 지리학자들이 외국에서 강단에 서는가 하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많은 지리학도들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국지리학의 국제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지에 출판되는 논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4세대 지리학자들이 앞에서 언급한 국책연구원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화정책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등의 국책연구원과 각 지역의 발전연구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지리학은 1970년대 이전과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에 해당하는 2001년 이후의 4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발전의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이들 시기별로 학문발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시기별 학회지별 분야별 발표논문 비교

〈대한지리학회지〉와 전문학회별 출판논문수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지난 60년 동안 지리학계의 큰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양적인 면에서 〈대한지리학회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지만 이후 〈대한지리학회지〉가 전체 지리학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지리교육학회의 〈지리학연구〉가 〈대한지리학회지〉보다 출판논문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1 참조). 이는 〈지리학연구〉에서 84년, 85년, 87년에 회갑기념 특별호로 많은 논문을 출판된 데서 비롯한다. 〈지리학연구〉는 당시 1년에 한호만 출판되지만 84년에는 36편을, 85년에는 59편을, 87년에는 20편을 출판한 결과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전문학회지가 출판됨에 따라 〈대한지리학회지〉와 〈지리학연구〉의 출판비중이 전에 비하여 훨씬 줄었다(표1). 두 학회지의 출판논문수의 비율이 지리학 학회지 총 출판논문의 38%도 채 못 된다. 이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줄게 되어서 27%에 불과하며, 〈지역지리학회지〉나 〈GIS학회지〉가 〈지리학연구〉보다 출판논문 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야말로 출판논문수로 보면 1990년대 이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학회지의 출판논문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면 또 다른 특성을 알 수 있다. 〈대한지리학회지〉의 경우 경제지리학분야와 지형학 분야가 출판논문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 학회지별 출판 논문 수와 비율

(단위 : 개, %)

	대한 지리 학회지	지리학 연구	지역 지리 학회지	지리 환경 교육	경제 지리 학회지	도시 지리 학회지	문화역 사 지리 학회지	관광 지리	GIS 학회지	지형학	사진 지리	합계
1963- 1980	113 (68.9)	51 (3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4 (100.0)
1981- 1990	121 (42.0)	158 (54.9)	0 (0.0)	0 (0.0)	0 (0.0)	0 (0.0)	9 (3.1)	0 (0.0)	0 (0.0)	0 (0.0)	0 (0.0)	288 (100.0)
1991- 2000	325 (25.4)	157 (12.3)	105 (8.2)	99 (7.7)	34 (2.7)	38 (3.0)	93 (7.3)	128 (10.0)	142 (11.1)	104 (8.1)	56 (4.4)	1281 (100.0)
2001- 2005	205 (16.3)	137 (10.9)	179 (14.2)	95 (7.6)	86 (6.8)	57 (4.5)	115 (9.1)	127 (10.1)	145 (11.5)	88 (7.0)	23 (1.8)	1257 (100.0)
총계	764 (25.6)	503 (16.8)	284 (9.5)	194 (6.5)	120 (4.0)	95 (3.2)	217 (7.3)	255 (8.5)	287 (9.6)	192 (6.4)	79 (2.6)	2948 (100.0)

해왔다(표 2 참조). 그러나 이 두 분야 모두 1990년대까지 그 비중이 약간씩 낮아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두 분야 모두 전체 출판논문 수의 16.1%를 차지한다. 대신 지도학 /GIS 분야와 지리교육 분야의 출판논문 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10% 이상씩을 차지한다. 환경지리분야도 그 비중은 높지 않지만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경제현상의 공간적 이해, 환경문제의 대두와 해결, 그리고 새로운 공간분석기법의 도입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리학계의 대표 학술지인 <대한지리학회지>가 보여준 이러한 특성은 한국지리학연구의 방향이 수요중심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잘 반영해준다고 판단된다.

표 2. <대한지리학회지>의 분야별 출판 논문 수와 비율

(단위 : 개, %)

년도	지형	기후	환경	역사/문화	경제	도시	인구/사회	정치	지역	지도/GIS	지리교육	기타	합계
1963-1980	22 (19.5)	12 (10.6)	0 (0.0)	14 (12.4)	27 (23.9)	14 (12.4)	8 (7.1)	2 (1.8)	4 (3.5)	1 (0.9)	3 (2.7)	6 (5.3)	113 (100.0)
1981-1990	17 (14.0)	10 (8.3)	1 (0.8)	10 (8.3)	23 (19.0)	19 (15.7)	10 (8.3)	2 (1.7)	8 (6.6)	5 (4.1)	1 (0.8)	15 (12.4)	121 (100.0)
1991-2000	40 (12.3)	20 (6.2)	13 (4.0)	36 (11.1)	48 (14.8)	34 (10.5)	28 (8.6)	7 (2.2)	14 (4.3)	26 (8.0)	24 (7.4)	35 (10.8)	325 (100.0)
2001-2005	33 (16.1)	16 (7.8)	9 (4.4)	20 (9.8)	33 (16.1)	17 (8.3)	14 (6.8)	5 (2.4)	1 (0.5)	24 (11.7)	21 (10.2)	12 (5.9)	205 (100.0)
총계	112 (14.7)	58 (7.6)	23 (3.0)	80 (10.5)	131 (17.1)	84 (11.0)	60 (7.9)	16 (2.1)	27 (3.5)	56 (7.3)	49 (6.4)	68 (8.9)	764 (100.0)

표 3. <지리학연구>의 분야별 출판 논문 수와 비율

(단위 : 개, %)

년도	지형	기후	환경	역사/문화	경제	도시	인구/사회	정치	지역	지도/GIS	지리교육	기타	합계
1973-1980	16 (31.4)	1 (2.0)	0 (0.0)	2 (3.9)	8 (15.7)	9 (11.8)	5 (9.8)	3 (5.9)	0 (0.0)	3 (5.9)	7 (13.7)	0 (0.0)	51 (100.0)
1981-1990	33 (20.9)	5 (3.2)	4 (2.5)	20 (12.7)	21 (13.3)	25 (15.8)	24 (15.2)	0 (0.0)	2 (1.3)	15 (9.5)	9 (5.7)	0 (0.0)	158 (100.0)
1991-2000	36 (22.9)	4 (2.5)	5 (3.2)	9 (5.7)	11 (7.0)	17 (10.8)	23 (14.6)	1 (0.6)	0 (0.0)	7 (4.5)	44 (28.0)	0 (0.0)	157 (100.0)
2001-2005	27 (19.7)	2 (1.5)	4 (2.9)	8 (5.8)	14 (10.2)	22 (16.1)	21 (15.3)	3 (2.2)	2 (1.5)	14 (10.2)	19 (13.9)	1 (0.7)	137 (100.0)
총계	112 (22.3)	12 (2.4)	13 (2.6)	39 (7.8)	54 (10.7)	70 (13.9)	73 (14.5)	7 (1.4)	4 (0.8)	39 (7.8)	79 (15.7)	1 (0.2)	503 (100.0)

표 4. <지역지리학회지>의 분야별 출판 논문 수와 비율

(단위 : 개, %)

년도	지형	기후	환경	역사/ 문화	경제	도시	인구/ 사회	정치	지역	지도/ GIS	지리 교육	기타	합계
1995- 2000	14 (13.3)	10 (9.5)	1 (1.0)	3 (2.9)	27 (25.7)	7 (6.7)	17 (16.2)	2 (1.9)	5 (4.8)	11 (10.5)	8 (7.6)	0 (0.0)	105 (100.0)
2001- 2005	26 (14.5)	5 (2.8)	8 (4.5)	19 (10.6)	31 (17.3)	8 (4.5)	31 (17.3)	9 (5.0)	16 (8.9)	12 (6.7)	14 (7.8)	0 (0.0)	179 (100.0)
총계	40 (14.1)	15 (5.3)	9 (3.2)	22 (7.7)	58 (20.4)	15 (5.3)	48 (16.9)	11 (3.9)	21 (7.4)	23 (8.1)	22 (7.7)	0 (0.0)	284 (100.0)

표 5.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구 지리환경교육)의 분야별 출판 논문 수와 그 비율

(단위 : 개, %)

년도	지형	기후	환경	역사/ 문화	경제	도시	인구/ 사회	정치	지역	지도/ GIS	지리 교육	기타	합계
1993- 2000	3 (3.0)	8 (8.1)	14 (14.1)	6 (6.1)	11 (11.1)	3 (3.0)	5 (5.1)	0 (0.0)	1 (1.0)	2 (2.0)	36 (36.4)	10 (10.1)	99 (100.0)
2001- 2004	0 (0.0)	0 (0.0)	11 (11.6)	1 (1.1)	0 (0.0)	2 (2.1)	1 (1.1)	0 (0.0)	2 (2.1)	2 (2.1)	74 (77.9)	2 (2.1)	95 (100.0)
총계	3 (1.5)	8 (4.1)	25 (12.9)	7 (3.6)	11 (5.7)	5 (2.6)	6 (3.1)	0 (0.0)	3 (1.5)	4 (2.1)	110 (56.7)	12 (6.2)	194 (100.0)

표 6. 지리학 종합지\*의 분야별 출판 논문 수와 비율

(단위 : 개, %)

년도	지형	기후	환경	역사/ 문화	경제	도시	인구/ 사회	정치	지역	지도/ GIS	지리 교육	기타	합계
1963- 1980	38 (23.2)	13 (7.9)	0 (0.0)	16 (9.8)	35 (21.3)	20 (12.2)	13 (7.9)	5 (3.0)	4 (2.4)	4 (2.4)	10 (6.1)	6 (3.7)	164 (100.0)
1981- 1990	50 (17.9)	15 (5.4)	5 (1.8)	30 (10.8)	44 (15.8)	44 (15.8)	34 (12.2)	2 (0.7)	10 (3.6)	20 (7.2)	10 (3.6)	15 (5.4)	279 (100.0)
1991- 2000	90 (15.3)	34 (5.8)	19 (3.2)	48 (8.2)	86 (14.7)	58 (9.9)	68 (11.6)	10 (1.7)	19 (3.2)	44 (7.5)	76 (12.9)	35 (6.0)	587 (100.0)
2001- 2005	86 (16.5)	23 (4.4)	21 (4.0)	47 (9.0)	78 (15.0)	47 (9.0)	66 (12.7)	17 (3.3)	19 (3.6)	50 (9.6)	54 (10.4)	13 (2.5)	521 (100.0)
총계	264 (17.0)	85 (5.5)	45 (2.9)	141 (9.1)	243 (15.7)	169 (10.9)	181 (11.7)	34 (2.2)	52 (3.4)	118 (7.6)	150 (9.7)	69 (4.4)	1551 (100.0)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 지역지리학회지

전문학회지중에서도 종합지성격을 띠는 <지리학연구>는 지형학분야와 지리교육 분야의 출판논문 수 비중이 높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지리학분야와 인구 및 사회지리학분야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표 3). <지역지리학회지>는 경제지리학분야와 인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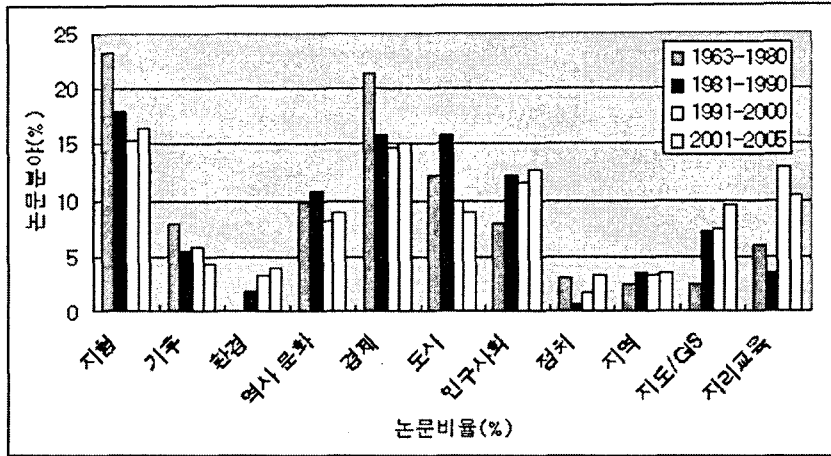


그림 1. 종합지에 게재된 연구분야별 비중의 시기별 증감추이

사회지리학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는 이제 지리교육분야의 전문학술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표 4; 5). 즉, 원래 지리교육학회의 학회지로 창간된 <지리학연구>는 종합지 성격의 학술지로 바뀌면서, <지리환경교육학회지>가 지리교육의 전문학술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한국지리학계의 종합학술지 성격을 띠는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 <지역지리학회지>를 합하여 각 분야별 출판논문을 정리한 것이 (표6)이며, 비율의 증감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1)이다. 전체적으로 분야별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형(17%) > 경제(15.7%) > 인구사회(11.7%) > 도시(10.9%) > 지리교육(9.7%) > 역사문화(9.1%) 등의 순이다. 지난 40년간의 변화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전통적으로 한국지리학의 핵심분야로 간주되었던 지형, 경제, 도시 등의 논문비율이 감소한 반면, 환경, 지도/GIS, 인구사회, 지리교육 등의 분야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종합지에는 경제, 도시, 지리교육, 역사문화, 지형 등의 전문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논문 편수에 비해 이들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연구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지리학 연구분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분류하면 전체 학회지의 특성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지리학과와 지리교육학과에 정식으로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되어 박사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이다. 1984년 이후 1990년까지 1980년대에는 역사문화지

표 7. 지리학박사학위논문 분류 (총 232개)

(단위 : 개, %)

	지형	기후	환경	역사/ 문화	경제	도시	인구/ 사회	정치	지역	지도/ GIS	지리 교육	기타	합계
1984- 1990	5 (16.1)	2 (6.5)	0 (0.0)	8 (25.8)	3 (9.7)	7 (22.6)	4 (12.9)	0 (0.0)	2 (6.5)	0 (0.0)	0 (0.0)	0 (0.0)	31 (100.0)
1991- 2000	20 (15.3)	9 (6.9)	2 (1.5)	6 (4.6)	32 (24.4)	13 (9.9)	26 (19.8)	1 (0.8)	3 (2.4)	4 (3.1)	15 (11.5)	2 (1.5)	131 (100.0)
2001- 2005	7 (10.0)	1 (1.4)	2 (2.9)	16 (22.8)	16 (22.8)	3 (4.3)	10 (14.3)	0 (0.0)	3 (4.3)	5 (7.1)	7 (10.0)	0 (0.0)	70 (100.0)
총계	32 (13.8)	12 (5.2)	4 (1.7)	30 (12.9)	51 (22.0)	23 (9.9)	40 (17.2)	1 (0.4)	8 (3.46)	9 (3.9)	22 (9.5)	2 (0.9)	232 (100.0)

리학분야와 도시지리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표7). 그러나 1990년대에는 경제지리학분야와 인구 및 사회지리학분야의 비중이 높았고, 역사문화지리학분야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역사문화지리학분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여 경제지리학분야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0년 상반기까지 총232명의 국내지리학박사가 배출되었는데 분야별로는 경제지리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구 및 사회지리학, 지형학, 역사문화지리학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지도학 및 GIS 분야의 비중이 2000년 들어서 높아진 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박사학위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을 암시해준다.

이상에서 단순히 출판논문 수만을 정리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출판논문수가 학문의 발전을 정확히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지리학연구 60년의 변화상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상은 학문분야별 수요, 학문 3세대들의 주도적 후학육성, 지리학 지평의 확대 등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시기별 지리학연구의 주요 주제

앞 절에서 출판논문의 수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분야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지리학연구에서

중요한 이슈와 연구주제들을 시기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주요 연구주제들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연구성과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경향과 방법론을 체계화하지는 못하였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지리학 각 전문분야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필자의 판단으로 학문발달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 1) 1970년대 이전의 한국지리학

우리나라의 지리학은 그 역사를 선사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졌고 조선시대의 지리학은 상당히 발전되었지만 전통시대의 지리학은 광복이후 곧바로 전승되지 못하였다(양보경, 2000).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지리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광복이후 한국의 지리학은 지지중심의 전통지리학이 아닌, 계통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지리학을 도입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대한지리학회가 1945년 창립되었지만 학회지가 1963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 초까지의 한국지리학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제강점에 의하여 한국의 지리학연구의 전통이 단절된 이후 해방된 한국의 대학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지리학의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된 상황에서 중등학교 지리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였다. 이 시기에 대학에서의 지리학은 주로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유사전공자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연구되었다. 소위 한국지리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대학교수들은 지리학연구보다는 지리교사를 양성하고 외국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강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유우익, 2000; 이찬·이기석, 2002). 이 시기에 한국지리학 1세대들이 「개관한국지리」, 「지리학개론」, 「경제지리학」, 「인문지리학」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고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경제지리학」 등을 번역하여 대학의 교과서로 이용하고 제자들을 해외로 유학 보낸 일은 한국지리학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1960년대 초 이전에는 지리학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못했지만 외국의 지리학을 소개하고 학문후속세대를 교육하며 이들로 하여금 전문지리학자가 되도록 안내한 노력은 후에 한국지리학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59년과 1962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地理」와 서울대

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와 「地理學報」가 각각 창간되었으나 아쉽게도 속간되지 못하였다(이찬·이기석, 2002).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학회지가 창간되면서 한국의 지리학연구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리학>으로 명명한 대한지리학회지에 1970년까지 5회에 걸쳐 31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한국지리학 2세대들이 현대지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였고 대학원과정을 정상궤도에 올림에 따라 이들에 의한 3세대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지리학연구의 논문수가 많지 않고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교재의 번역과 일부 교과서의 출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전문학회에서 1960년대를 지리학 각 분야의 학문발전이 태동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정치지리학 원론」, 「지형학 원론」, 「도시지리학」 등의 계통지리학 분야의 대학교재가 출판되었고 외국교재가 번역되어 출판됨에 따라 서구의 현대지리학이 한국지리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한국지리교육학회의 <지리학연구>가 1973년에 창간됨에 따라 한국지리학계는 2개의 학회지가 출간되었으며,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들이 출판됨에 따라 학술지의 투고자와 독자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1960년대와 다른 1970년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또 다른 발전의 계기는 1972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에서 <낙산지리>(현 지리학논총)가 1973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창간되어 전문학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서구에서 개발된 지리학이론을 한국의 환경과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주로 행해졌다. 특히 미국지리학계의 계량혁명과 이론지리학적인 연구가 소개되어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리실증주의적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많은 대학원 학생들이 논리실증주의적인 방법론에 심취했으며, 이들 학문 3세대들은 70년대에 유학길에 오른 경우가 많았다.

자연지리학분야에서의 연구는 지형학과 기후학분야가 중심을 이루었다. 지형학분야에서 1960년대까지는 지형침식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심층풍화, 주빙하 현상 등 기후지형학적 해석이 추가되었고 충적평야와 하안단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제4기 고환경을 유추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형학분야의 연구경향을 침식학파와 충적학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손일, 2000). 기후학분야에서는 기상자료의 통계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기후학에서는 기후요소의 시계열적 변동성, 수분수지분석등을 통하여 유형을 발견하고 기후지역을 구분하는 통계 기후학적 연구가 활발하였다.

인문지리학중에서 도시지리학분야와 경제지리학분야에서 법칙추구적인 방법론을 중시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시지리학분야에서는 1960년대에는 도시화, 도시성장, 도시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심지이론의 검증, 도시체계, 도시구조이론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농업지리학연구가 경제지리학의 연구를 선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공업지리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또한 1970년대는 인구 및 사회지리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가 태동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문지리학분야의 연구, 특히 도시 및 경제지리학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밀접히 관련하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문화 및 역사분야 등의 연구도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 2) 1980년대 한국의 지리학

1980년대에 들어서 학회지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가 창간되어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와 더불어 3개의 학술지가 출간되었다. 한국지리학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는 1970년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는 문수의 증가,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학과수와 그 대학원 졸업생수의 증가, 외국에서 학위하고 귀국한 3세대학자들의 적극적인 학술활동 등으로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의 수가 1970년대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리학 관련학회지인 국토계획학회의 <국토연구>, 한국지역학회의 <지역연구> 등에도 지리학논문이 상당수 출판되어서 지리학연구가 응용분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지리교육학과 또는 지리학과를 창설하여 지리학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1980년 이후 전국에서 7개의 지리학과 또는 지리교육학과가 창설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신설된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대학원과정을 신설하였고 그 수가 무려 11개나 된다. 이는

1980년대에 지리학 전문인력 양성이 급성장하여 지리학발전의 도약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한국의 지리학연구가 도약기에 접어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한국지리학 3세대들의 적극적인 학술활동과 대학원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학 저변의 확대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제 3세대 지리학자들과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3세대 지리학자들의 대학진출이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지리학 3세대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학회 등 지리학 관련학회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져 지리학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지리학 제4세대 교육에 열정을 다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자 중 일부는 해외에 유학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일부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여 국내박사들에 의한 한국지리학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한국의 지리학연구는 방법론과 연구주제에서 1970년대에 비하여 매우 다양해졌다. 1970년대 한국의 지리학은 논리실증주의의 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주도하였다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인간주의 및 구조주의에 입각한 연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자연지리학분야의 연구도 보다 과학적인 방법과 분석이 동원되었다.

자연지리학중 지형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연구분야 및 방법론의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주를 이루었던 침식 및 지형발달연구가 기후지형, 구조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 풍화 및 토양 등으로 세분되면서 연구영역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시기이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성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서 실측과 실험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지형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기후학분야에서는 기온, 강수변동성, 장마, 호우, 한발 등 기후현상에 대해 종관 기후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1980년대는 지형학과 기후학 외에도 토양학, 수문지리학, 생물지리학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환경문제는 자연지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인문지리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인문지리학분야에서 도시 및 경제지리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여전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인문지리학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방법론이 도입되어 연구의 내용이 심화되었다. 경제지리학과 도시지리학분야에서 모두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공간분석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행태주의적인 접근, 정치경제학적인 접근, 인간주의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지리학연구에서 산업의 입지와 변동을 비용절감이나 수익증대라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기업인의 행태, 기업조직, 기업의 전략, 공간분업, 정치경제적 구조 등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 의해서 경제활동의 입지와 지역정책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도시지리학분야에서도 도시체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대도시 근교의 교외화,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 도시경제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지리학연구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김인, 2002). 1980년대 들어서 사회지리학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거주지 분화, 도시빈민과 무허가 정착지 등 도시사회지리학적 분석과 연구가 그 예이다.

1980년대 인문지리학에서는 경제지리학과 도시지리학분야에서 논리실증주의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론과 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진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의 탄생과 <문화역사지리>라는 학회지의 창간은 다른 전문지리학분야의 학회창립을 예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역사지리학분야는 1980년대 후반에 학회지의 출간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이 분야의 국내박사학위가 타 분야에 비하여 가장 많이 배출됨으로 인해, 한국지리학계에 문화역사지리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논리 실증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지역지리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고 이 분야의 경험적 연구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건설부 국립지리원이 대한지리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韓國地誌』(1980-1986)를 편찬한 것은 지리학계가 직접 지지연구에 힘을 모은 사례라고 본다. 당시 연인원 2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총 5권을 편찬하였는데 국가가 지지편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500여 년 만에 발간한 관찬지지이며 당시의 국토정보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한국지지의 연구와 더불어 해외지역연구도 1980년대 들어서 상당히 이루어졌다.

### 3) 1990년대 한국의 지리학연구

1990년대의 한국지리학은 전반적으로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한국지리학계의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본다. 우선 가시적인 변화를 보면, 80년대 말의 문화역사지리학회에 이어서 1990년대에 들어서 8개 전문학회가 창립되고 각각 전문학회지가 출판되었으며, 학회지의 논문출판 편수가 1980년대의 4배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수도 1980년대의 4배 이상이었다. 각 전문학회도 매년 2회씩 학술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지리학계의 학술대회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의 유치 및 국내학자들의 해외학술회의 참석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로 가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지리학계의 지각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92년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7차 세계지리학대회에서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지리학자들이 외국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지리학대회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서울대회유치가 확정된 이후 한국지리학자들은 IGU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IGU의 각 분과위원회의 학술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제28차 세계지리학대회가 개최된 이후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에서 IGU 각 분과위원회의 연차 회의를 개최해야하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1990년대 말경부터 매년 분과위원회의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과위원회의 학술회의의 참가는 한국지리학자들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켰고 각 전문분야별로 학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1990년대에 세계화의 물결과 더불어 국내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지리학계의 국제화가 급진전된 시기였다고 본다.

1990년대 한국의 지리학연구는 그 내용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지리학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연구주제와 방법이 다양화되었으며 질적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지리학분야에서는 지형학과 기후학분야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토양, 생물, 수문 등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지형학분야에서 화분분석, 탄소연대측정, 구조분석 등 새로운 분석방법이 동원되어 홀로세의 퇴적환경과 기후변화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연지리학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일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한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는 달리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부터는 지



형경관분야가 조사항목에 추가되어 매년 많은 지형학자가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손일, 2000). 자연지리학자들은 이 조사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평가하고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자연환경정보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공헌하였다. 이외에 자연지리학자들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무인도조사나 내륙습지조사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자연지리학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지리정보체계(GIS)가 지리학연구에 도입되면서 지도학분야의 연구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 지도학의 원리와 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연구의 중심이 지도학에서 GIS로의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성효현, 2002). 특히 GIS의 공간분석기법은 기후 및 환경과 토지이용분야는 물론 입지분석 등 인문지리분야에의 적용도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연구는 한국 GIS학회의 설립과 더불어 많은 지리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인문지리학분야에서는 실증주의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인간주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행태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접근방법과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유연적 생산체계의 확산, 산업구조조정,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첨단산업의 발전, 정보화, 경제의 세계화 등의 영향이 지역에 나타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경제 및 도시지리학적 분석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기술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도시공간과 고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역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의 불평등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 분야의 연구가 경제 및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지리학과 관련한 사회이론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여성문제와 환경사회윤리 등의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지역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 전통사상의 소개와 이해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환경을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인간생태학적인 접근방법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고지도에 대한 연구, 풍수지리사상과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지리사상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전통지리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과 국토개발, 환경정책,

관광개발 등 응용분야와 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담론에 대해서도 지리학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 4) 21세기의 한국 지리학연구

21세기에 접어들지 채 5년도 되기 전에 대한지리학회와 전문지리학회에서 출판한 학회지의 논문 수는 1990년대 10년에 걸쳐 출판한 논문의 수와 비슷할 정도로 연구의 양적이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전문지리학회의 창립과 학회지의 창간,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 개최, 한국지리학 1세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3세대에게 훈련받은 4세대들의 적극적인 학술활동 등은 21세기에 한국지리학의 변화를 예측해 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제 한국지리학 1세대들의 학술활동은 완전히 종료되고 제 4세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지리학회지와 많은 전문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로 발전하였다. 대한지리학회지는 영문판을 포함하여 1년에 6호를 출판하고 지역지리학회지도 1년에 4호를 출판하며 다른 전문학회지도 1년에 출판하는 횟수를 늘렸다.

21세기에 들어서 대한지리학회는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한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 지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였고 국책연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리학을 대외에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 중심이 되어 「韓國地誌」를 출판한 후 20여년 만에 다시금 「한국지리지」의 출판이 시작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대한지리학회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매년 한 권씩 총 5권의 「한국지리지」를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미 「충청편」과 「전라·제주편」이 출판되고 금년에 「경상편」이 출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작업은 다시 한번 한국지리학자들의 연구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이후 많은 한국지리학자들이 IGU의 분과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많은 학자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한국지리학자들의 국제회의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 대학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많은 지리학자들이 해외파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많은 한국지리학자들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외국대학에 채용되어 교수로 활동하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지리학자들의 국제교류가 전례없이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고 새

로운 지역발전전략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중요한 기여를 함에 따라 한국지리학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지리학은 성숙단계에 들어서 이제 새로운 학문세대에 의해서 한 단계 높은 지리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지리학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리학계 내외로부터 변화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각 분야별로 연구내용이 어떠한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연지리학분야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형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지형학회지>가 년 2회 출판되던 것이 2004년부터 년 4회 출판되고, <대한지리학회지>에서도 지형학분야의 논문출판비율이 높아져서 이 분야의 학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세기 들어서 지형학분야 연구는 크게 지형형성과정의 정량적 이해,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지형연구, 해외지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지형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하는 연구들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지형의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지형요소들(간석지, 습지, 산지)을 둘러싼 환경갈등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지형을 중요한 환경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이다. 그리고 지형학이 순수학문에서 벗어나 응용학문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형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론이 보편화되면서 연구의 범위에서도 거시적 연구보다는 시공간적으로 미시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경향이다. 21세기 들어서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위성영상자료와 다양한 공간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형의 형태와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넓은 지역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공간분석기법의 도입은 과거 종이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벗어나 지형학의 연구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지형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형학 연구자들이 해외답사와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외국의 지형들을 소개하는 논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학관련 전문지리학회지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후학분야의 논문발표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연구주제도 미기후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1990년대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

장함에 따라 환경관련연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환경문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자원다양성, 환경관리, 환경교육, 재해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관련 연구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친환경농법, 생태관광, 통합적 개발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지도학 및 GIS에 관한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GIS분야의 연구가 크게 확대된 데서 비롯된다. 21세기 들어서 GIS 관련 논문은 크게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과 관리, GIS의 구축, GIS의 활용영역의 확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DB의 구축과 관리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 수질관리시스템, 하천수질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GIS구축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GIS는 자연재해의 예측 등 자연지리학분야에의 적용에서부터 영업사원 및 고객간의 효율적인 상품거래정보공유를 위한 영업자동화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응급진료권 분석 등 다양한 경제사회현상에 적용되는 등 그 응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GIS 표준화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및 지방정부의 GIS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지리학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제지리학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문화역사지리학, 지리교육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경제지리학분야에서는 혁신, 정보화,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 농업의 혁신환경과 클러스터 육성, 친환경적 농업 등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한 이론과 정책적인 연구, 혁신체계의 해외사례소개, 기업의 혁신네트워크와 협력네트워크, 전자상거래의 공간적 특성, 금융 산업에 대한 연구 등 새롭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외에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상업, 유통, 고차서비스, 산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경제지리학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에 강조해온 지역혁신체계나 산업클러스터의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핵심전략으로 이용됨에 따라 지리학의 이론이 지역발전전략으로 적극 활용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리학은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교류를 상당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도시지리학분야에서는 도시화와 도시기능 및 도시구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세계도시론, 도시마케팅, 도시경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

히 이루어졌다.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인터넷분석을 통한 도시간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도시화 등의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시지리학의 연구는 한국지리학에서 연구논문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는 한편 다양한 분석방법과 새로운 연구주제의 발굴 및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역사지리학분야는 1990년대에 활성화된 연구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온 가옥구조, 문화경관, 촌락의 형성, 고지도 연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회지리학분야는 1990년대에 비하여 연구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지역격차, 사회적 양극화, 거주지 분화 등 1980년대 이후 중심연구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편 새로운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즉, 여가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여가와 관광 및 축제, 의뢰서비스의 공간적 불균등, 인터넷과 미디어의 파급효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 및 중국 노동력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지리교육학회지〉가 명실상부한 지리교육 전문학회지로의 역할을 하면서 지리교육에 대한 연구논문수가 199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효과적인 교육기자재의 하나로서 웹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과 GIS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행해온 지리교육의 내용구성 및 지리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큰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전통지리 및 사상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연구,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지역연구는 정치지리, 생태관광, 환경문제, 노동시장, 수도이전사례, 해외직접투자 등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사진지리학회가 설립되어 활동함에 따라 연구자의 수는 많지 않지만 사진지리학회지에 지형연구, 관광유형, 문화관광, 관광자원개발, 경관읽기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 4. 21세기 한국지리학연구의 과제와 전망

1945년 대한지리학회 창립 이래 60년 동안 한국의 지리학연구는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왔다. 특히 1992년의 제 27차 워싱턴 세계지리학대회에서 2000년 제 29차 세계지리학대회를 서울에 유치한 이후로 한국지리학계는 학문연구와 학회활동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한국지리학계 1세대의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고 제3세대와 더불어 그들이 지도한 제 4세대 한국지리학자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한국지리학연구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지리학연구는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지리학연구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호흡을 함께 하면서 연구주제와 내용이 변하여 왔다. 도시화와 산업화 및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한국의 지리학 연구는 나름으로 국토공간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부터 정책적 이론적 연구를 행하여 지리학의 발전을 꾀하여 왔다.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 “고령사회”, “범지구촌시대”라는 키워드가 현실화되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구촌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제반 정책이 중시될 것이며 자유시장주의의 틀 속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리라 믿는다. 이는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위주의 산업화사회와는 상이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지리학의 연구대상인 지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사뭇 다르리라 여겨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지리학연구는 새로 다가오는 지구촌의 변화된 사회에 적합하고 지리학의 본질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창조적 사고와 아이디어로 추측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천재적인 미래학자는 전자의 방법을 통하여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지리학연구 추세를 고려하여 변화되는 사회에서 지리학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지리학연구를 전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21세기 전 기간의 한국지리학연구를 전망하기보다는 앞으로 25년까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지리학전반에 걸친 큰 흐름에서 과제와 전망을 검토하고 필자가 논의 가능한

몇몇 계통지리학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 1)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통합적 연구의 활성화

지리학은 원래 종합과학이다. 앞으로 자연지리-인문지리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지난 세기에 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을 마치 협력할 수 없는 것처럼 갈라놓았고, 공간분석지리학과 사회문화지리학의 접근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왔다(Kwan, 2002). 이제 지리학자들은 자연-인문, 공간분석-사회문화, 정량-정성 등의 이분법적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모두를 포괄하는 지리학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리학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지리학이 순수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 지리학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공간적 변동의 중요성,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지리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과정, 시공분석의 통합을 이해하는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Hanson, 2004). 한국의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이 갖는 비교우위를 이해하고 있으며 타학문과의 토론에서 지리학의 이러한 장점을 역설한다. 그러나 막상 지리학연구에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통합적 접근을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지지(地誌)연구나 지역연구에서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항목만 서술하는 경우가 자연-인문지리학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일 따름이다. 지역을 연구하는데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을 분석하고 정리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기술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와 틀 속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지리학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될 것인데, 자연이나 인문환경 중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동시에 아우르는 연구가 수행될 때 제대로 된 환경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리학연구의 오랜 전통중의 하나인 “인간-환경 전통”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이 의미 있는 통합을 꾀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Rhoads, 2004). 통합적인 차원에서 해안

지역의 생태환경과 산업화의 문제, 지역의 전통자원과 환경을 활용하여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고령사회에 대비한 친환경적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인문지리학자와 자연지리학자가 협력하여 통합적 연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지리학회의 학회지인 *Annals of American Geographers*에서 2001년부터 학술지체계를 환경과학; 방법론, 모델, GIS ; 자연과 사회 ; 사람, 장소,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자연-인문의 통합적 체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지리학의 변화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연과 인문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인문지리학자와 자연지리학자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연지리학자와 인문지리학자는 각각 자기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확대해야 하며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로 특징짓는 21세기는 학문의 통합적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21세기 학문의 경관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과학재단(NSF)에서 밝힌 학문의 통합적 연구경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은 수학이 학문의 기본 언어로 중요하며, 복잡성은 과학과 공학의 특성을 조명하고, 국제적 협력은 이제 국경 없는 과학적 사고의 규범이며, 작은 입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미개척영역에 통찰력과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세계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이버하부구조의 공유는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하도록 우리의 역량을 확대하고, 연구와 교육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Colwell, 2004). 이러한 경향은 단지 미국학계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지리학은 학제간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지식을 터득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지역내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국가, 세계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적 차원을 포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본다. 또한 지리학의 연구는 지역사회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제간의 연구, 다양한 공간을 고려하면서 사회와 연계



된 연구는 계속 중요해지리라 믿는다.

학제간의 연구가 왜 중요한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지리학자가 인정하리라 본다. 지리학사의 측면에서 가장 중시해온 환경을 연구한다고 할 경우, 자연지리학자는 생물학은 물론 환경공학과와의 협력을 통해서 환경시스템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과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본다. 한 특정한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이해가 동시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 15년 이내에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장수지역 또는 장수인에 대한 연구 및 고령사회의 공간조직변화 연구는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고령사회와 관련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을 중심으로 적어도 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생활과학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지리학계에서는 이러한 학제간 협력과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리라 믿으며, 이를 위해서 지리학자들은 인접과학과의 협력을 통한 신지식을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지리학자는 각각의 전공분야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타학문과의 학제적 협력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리학의 장점을 활용치 못한다면 학제적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은 타학문 분야와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리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른 학문전공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고 지리학의 학문적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제적 협력과 연구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 20세기에 이분법적 사고로 분리되었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계량분석과 정성적 분석, 공간 분석과 사회문화, 사회과학과 인문예술 등을 가로지르는 제3의 방법론과 통합적인 연구가 발전하리라 본다.

### 3) 해외지역연구 및 북한지역 연구의 활성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요 세계화시대라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정보화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세계화를 촉진하여 왔다. 세계화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표준화되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인정되면서 세계 각 지역이 서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꾀하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성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지역간 협력

은 암묵적지식의 교류와 지식전환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ark, 2003). 지리학자는 이와 같은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경험과 사례는 한국의 각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지리학자는 한국지역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의 각 지역을 탐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북분단은 지리학자로 하여금 국토공간을 하나의 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되고 있다.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국토공간연구는 분단된 국토를 회복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 분단 현실 속에서 협력과 통일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동안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1세기에 들어서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지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서 연구에 상당한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 인공위성사진 자료를 통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북한지역의 농업 개발, 환경문제, 경제특구개발, 지역개발 등은 지리학 내에서의 협력적 연구는 물론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지리학자들의 해외탐사와 해외지역연구 및 북한지역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지역연구와 북한지역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깊이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지리학자들은 북한지역 연구를 통해 통일학연구의 가치와 수준을 한층 높이리라고 본다.

#### 4) 한국적 지리학이론과 모델의 정립

한국의 지리학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양보경, 2000).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의 단절로 인하여 해방이후 계승 발전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한국지리학연구가 서구의 이론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는 학문선진국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적 지리학이론과 모델의 정립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전통시대의 한국지리학의 이론과 사상을 현대한국사회의 발전에 접목시켜서 한국적 모형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40여 년 동안에 한국이 겪은 공간발전과 변화의 독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전통시대의 사상과 이론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시대의 한국지리학연구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순히 과거의 이론으로의 회귀나 과거이론의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전통이론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우리 경제발전의 모델은 나름대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역동적인 공간변화도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지리학의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민성과 고유의 문화 및 특유의 자연환경은 바로 한국적 지리학모형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국적 특수성을 밝히면서 한국지리학의 새로운 지식창출이 제4세대 및 제5세대 한국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 분공장경제의 황폐화를 주장하는 이론이 나왔지만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분공장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원, 대도시 인근지역 등이 과거의 공단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발전하는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지역은 그 규모가 세계적이며 생태 환경적 변화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적 상황, 세계적인 정보하부구조의 발달 속에서 이루어진 급속한 정보화, 최근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과정 등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삶의 공간과 경제공간의 변화는 한국적 지리학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지리학 이론과 모델은 해외의 다른 지역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연구도 앞으로 상당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 5) 계통지리학 분야의 연구전망

앞에서 한국지리학연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전망을 설명하였다. 각 계통지리학분야에서 나름의 과제와 전망이 있겠으나 여기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본다. 아마 이 분야는 각 토론자들이 보완해주어야 할 내용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주 간략히 계통지리학적 차원에서 일부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연지리학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2002: 35)는 환경과 관련한 지리학적 연구의 전망을 “(1)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제공, (2)세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간적 분석, (3)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통합과 인문학적 이론개발, (4)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결합을 위한 공간적 분석의 틀을 제공, (5)GIS, GPS 등의 방법론의 발달에 따른 지역환경정보의 정교화, (6)환경연구, 환경교육 등에 있어 지리학의 내용과 방법론 제공, (7)환경관련 국가 및 공공의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앞에서 밝힌 포괄적 내용까지 고려한 전망이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환경연구가 개별적인 환경요소를 분석하는 것 못지않게 생활속의 환경과 지구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는 지리학내에서의 분야간 협력뿐만 아니라 타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는 지리정보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GIS연구는 세계적 변화추세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 GIS와 Web-GIS가 발달하게 되고, 다양한 공간통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과학적 시각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망되고 있다(성효현(2002)). 또한 국내의 서로 다른 기관은 물론 범세계적 GIS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해 GIS 자료의 호환성 및 표준화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다. Goodchild(2004)는 형태(form)보다는 프로세스(proces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리정보학은 자료의 공급과 분석방법 및 시각화의 개성을 통하여 동태성을 보다 잘 표현하는 것; 프로세스의 분석과 개념화사이의 밀접한 결합; 프로세스의 디지털표현을 공유하기 위한 하부구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지리정보학연구가 프로세스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지리학과 정보과학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지리학분야에서 최근에 경제활동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데 혁신, 관계, 네트워크, 문화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공간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고, 고령사회, 정보화, 세계화속에서 산업의 입지, 기업의 활동, 경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역동적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리라 믿는다. 특히 지역혁신체계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공간의 발전과 이해를 위한 제3의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가 진전됨에 따라 공간의 역동적인 변화는 가속화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불균형의 문제도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공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재구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최병두, 2002). 한국지리학에서 앞으로 이러한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회경제공간정책이나 시민사회운동에의 참여도 상당히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계통지리학분야에서도 학제적 연구와 자연-인문의 통합적 연구가 다양한 주제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화, 지속가능성, 인구고령화, 세계화 등 21세기 들어 한국에서 크게 부각된 이슈들은 인문현상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프로세스와 한국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인문의 통합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적, 학제적 연구에 지리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지리학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지리학 4세대 및 5세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한국지리학계는 상호협력 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지난 60년 동안의 한국지리학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하였고 내용과 방법론에서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21세기 중사반세기세기에는 한국지리학 4세대, 5세대들이 양적인 변화를 넘어서 학문연구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한국지리학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인, 2002, "V. 도시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143-168.  
 대한민국학술원, 2002,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대한지리학회, 1976, 지리학 30년(1945~1975)의 호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리학〉 13:3-57.  
 대한지리학회, 1996, 광복 50주년 및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특집호, 〈대한지리학회지〉 31권 2호: 5-354.  
 박삼옥, 2002, "IV 경제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97-142.  
 성효현, 2002, "지도학과 지리정보학(GIS)"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

- 향과 전망」: 109-123
- 손일, 2000, “제3장 자연지리학”,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0, 「한국의 지리학자 지리학자」: 106-168.
- 양보경, 2000, “제 1장 전통시대의 지리학”,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15-98
- 유우익, 2000, “제 2장 개관”,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99-105.
- 이민부, 2002, “환경지리학”,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27-35.
- 이찬?이기석, 2002, “1. 인문지리학 연구개요”,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3-16.
-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0,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올아카데미.
- 최병두, 2002,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지리학”,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85-94
-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2002,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지리학 · 교육학 · 독어독문학 · 사회복지학, Vol. IV-1: 1-181.
- Brunn, Stanley, Cutter, Susan, and Harrington, J. W., 2004, *Geography and Technology*,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olwell, Rita, 2004, “The New Landscape of Science: A Geographical Portal”, *Annals of the AAG* 94: 703-708.
- Goodchild, Micahel E., 2004, “GIScience, Geography, Form, and Process”, *Annals of the AAG* 94: 709-714.
- Hanson, Susan, 2004, “Who Are “We” An Important Question for Geography’s Future”, *Annals of the AAG* 94: 715-722
- Kwan, Mei-Po, 2004, “Beyond Differences: From Canonical Geography to Hybrid Geographies”, *Annals of the AAG* 94: 756-763.
- Mitchell, Don, 2004, “Geography in an Age of Extremes: A Blueprint for a Geography of Social Justice”, *Annals of the AAG* 94: 764-770.
- Park, Sam Ock, 2003, “Economic spaces in the Pacific Rim: a Paradigm shift and new dynamic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2: 223-247.
- Rhoads, Bruce L., 2004, “Whither Phys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AG* 94: 748-755.